

[스크랩] 뉴에이지 영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착한하늘다리 | 12.05.27 | 102

목록

댓글 1

가

가

문화, 세계관 그리고 뉴에이지

뉴에이지 영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강진구(영화평론가,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겸임교

수)

‘뉴에이지 영화’는 어디에 있을까?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이 처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영화의 경우 그것이 지닌 성격은 대개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누구의 영화인가를 보는 것이고, 둘째는 어떤 종류의 영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누가 만들었는가를 보는 일이 중요한 것은 프란시스 웨퍼가 말했듯이 모든 문화는 사상 또는 세계관의 결과물인 만큼 감독이나 제작자의 생각이 영화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감독의 여러 영화들 속에서 고유한 스타일이나 메시지가 공통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이 감독을 ‘작가주의 감독’이라고 높여서 부르기도 한다. 또한 어떤 종류의 영화인가를 살피는 일 역시 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대중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우리는 여러 감독들이 만든 서로 다른 영화들 속에서 비슷한 점들이 발견될 때 이를 묶어서 ‘장르’란 이름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뉴에이지 영화’를 만드는 작가주의 감독은 존재하고 있으며, 장르는 형성되어 있는가? 아직까지 ‘뉴에이지 영화’만을 고집하는 감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서부극이나 호러물, 아니면 멜로드라마처럼 내용이나 형식상의 비슷비슷한 점을 추스려서 장르라고 말할 때에 아직까지는 ‘뉴에이지 영화’라는 하나의 장르로 통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뉴에이지 영화’가 아직까지 대중들에게는 뉴에이지 음악만큼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만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뉴에이지 영화는 우리가 간과해도 좋을 만한 것인가? 뚜렷한 감독이나 장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무시해도 좋을 상황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이 점이 '뉴에이지 영화'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명확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보다는, 겉으로는 다른 장르 속에 묻혀서 쉽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밑바탕이나 영화 결말의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함으로서 그 영화의 독창성을 살리는 제법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지 루카스가 만든 영화 <스타 워즈>의 경우 이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 원인이자 실재이며 만유에 존재하는 보편적 존재로서 'Force'를 계속 말하고 있다. 'The Force'는 뉴에이지 사상의 비인격적 신에 해당하는 궁극적 존재로 마치 기독교의 성령님처럼 인간 몸 안에도 있고 우주 어느 곳에도 존재한다고 뉴에이지자들은 믿고 있다. 제다이 기사들의 스승인 '요다(Yoda)'는 아이들에게 이 'The Force'를 느끼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자신과 우주의 근원을 아는 것이며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행복으로 가는 열쇠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스타 워즈> 1편에서 주인공 루크는 기술이 아닌 자신 안에 내재된 이 'The Force'를 사용하여 공격에 성공한다.

그러나 일반 영화계에서 <스타 워즈>를 뉴에이지 영화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 단순한 SF 액션 영화일 뿐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현대인들을 향한 새로운 종교성을 깨우려는 감독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조지 루카스는 1999년 시사주간지 TIME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젊은이들 안에 있는 일종의 영성을 깨우려는 목적으로 이 영화 속에 'The Force'를 집어넣었다. 나는 'The Force'를 하나님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스타 워즈> 시리즈는 '20세기 최고의 흥행작 베스트 20'에 무려 4편이나 올라간 가장 대중적인 영화란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영화와 영화 속에 내재된 세계관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란 무시해도 좋을 사항만은 아닌 듯하다.

뉴에이지 영화의 종류

일반적으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뉴에이지 영화'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뉴에이지의 중심사상과는 직접 연관성 없이 단지 뉴에이지어들이 사용하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뉴에이지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에이지 영화'와 '뉴에이지적인 영화'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 영화(Redemption Movie)와 기독교적인 영화(Redemptive Movie)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과 유사하다. 세실 데밀 감독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나사렛 예수>나 <왕중왕>, 최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메시지를 영상화시켜 표현함으로써 누가 봐도 기독교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 '기독교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가지 '기독교적 영화'라 함은 직접적인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진리에 기초한 가치관이 드러나고 그 진리가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화라 할 수 있다. 기독교 변증론자인 C.S루이스의 삶을 다룬 <새도우 랜드>, 섬김과 사랑을 묘사한 <바베트의 만찬>과 같은 영화들은 직접적으로 진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삶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일반인들에게도 귀하고 아름답게 인식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영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분류는 ‘뉴에이지 영화’와 ‘뉴에이지적 영화’를 나누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즉 뉴에이지 사상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나 뉴에이지 작가의 사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영화들을 우리는 ‘뉴에이지 영화’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좀 다르게 뉴에이지 사상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주제를 전개시키는데 있어서 뉴에이지어들의 사고방식이 옹호되는 영화라 한다면 결국 뉴에이지 사상이 자라는데 비옥한 토양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뉴에이지적인 영화’라 분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명감독 끌로드 를로슈의 91년작 <아름다운 이야기>는 동양의 환생론에 기초해 예수의 환생과 전생을 묘사한 뉴에이지 영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뉴에이지 사상의 특징인 동서양의 사상을 신비적으로 결합하는 혼합주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주제와 깊이 맞물려 있다. 그러나 똑 같은 남녀간의 사랑을 테마로 한 <사랑과 영혼>의 경우 문제가 된 영매를 통한 접신 과정은 두 남녀 간의 사랑의 완성시켜 주는데 사용되는 도구적 역할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인 입장에서 표현한다는 점에서 ‘뉴에이지적인 영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뉴에이지 영화 구분법

뉴에이지 사상의 범람에는 현대인들의 필요성이 담겨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물질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이며 각박한 세상에 대한 탈출구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가 이미 옛것이 되어 버린 서구인들에게 따라서 동양사상을 간직한 뉴에이지는 매력으로 다가선다는 사실이다. 기독교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한 이 시대에 먼저 뉴에이지 영화를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점을 제시해 본다.

첫째, 행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영화들은 해피엔딩을 지향한다. 주인공이 얻는 행복의 비결을 생각해보자. 뉴에이지들이 자주 사용하는 접신, 심령술, 피라밋, 초월명상 등이 행복의 결정적 방법들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둘째, 그것은 성경적 사실인가? 성경의 지식과는 다른 지식들을 전파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예를들어 뉴에이지어들이 자주 말하는 ‘환생’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사실이다. 성경은 직선적인 시간관, 즉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시간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환생은 비사실적인 지식이다.

셋째, 무엇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뉴에이지의 구원관의 출발점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이다. 뉴에이지자들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완전성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영적 구원마저도 이

들은 요가와 같은 방법을 실행하는 동안 얻어지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 인간의 힘과 능력을 무한대로 인정하는 이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 부른다. 뉴에이지는 인본주의의 가장 높은 끝에 서 있는 것이다.

티칭포인트

1. 당신은 영화를 볼 때 영화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①감독 ②장르 ③배우 ④기준 없음

2. 뉴에이지 영화와 뉴에이지적 영화를 당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3. 다음 중 뉴에이지와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기체조 ②요가 ③마인드 컨트롤 ④엽기코드

(*기체조, 요가, 마인드 컨트롤의 경우 단순한 육체의 움직임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 내면의 세계와 우주를 탐색하는 영적 순례를 점차적으로 병행하게 된다. 그러나 엽기코드의 경우 90년대 이후 사이버문화의 붐을 타고 재미와 자극을 좇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적 기호다.)

4. 영화가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스크랩출처 : [행복의 샘터](#)

글보관 | 신고

| 댓글 1 | 댓글쓰기 | 답글쓰기 |
|------|------|------|
|------|------|------|

이상미 | 12.06.04

잘 숙지하고 바른 길 가는 착한 신앙인이 됩시다^^

댓글 전체보기

기독교자료 다른글



선교와 순교-영상입니다.

헨리나웬의 영성일기/이강학

뉴에이지 영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1)

이스라엘 12지파 비교 연구

아줌마 전도왕 교회개척 도전기 (1)

십일조가 폐지된 헌금이나?

구원파의 10개 항(일반 기독교인에 대한 질문) (1)

